

기획 ▶5면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7년 방송계 이슈① | 중간 광고

종합 ▶6면

2017년 방송·ICT전시회

오피니언 ▶7면

[칼럼] 졸지 말자, AI 시대

지상파 UHD 본방송 연기? 그럼 언제부터?

지상파 3사 “테스트 기간 충분히 갖고 9월 동시 시작”
미래부 “준비된 방송사부터 차례대로 시작”
방통위 “9월 시작은 너무 늦어”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일정을 놓고 지상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해 말 올해 2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본방송 서비스를 9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는 공공기관으로 방송허가장 교부를 전제로 방송 장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한 방송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고, MBC나 SBS의 경우 방송 장비 도입은 마무리됐으나 필드 테스트 시간이 부족해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상파 3사는 EBS가 오는 9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만큼 일정을 맞춰 지상파 4사가 동시에 UHD 본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방통위는 1월 31일 지상파 3사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사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와 관련된 현황과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KBS는 “빨라야 2월 말이나 방송 장비를 갖출 수 있다”, MBC는 “송신 장비 일부가 문제를 일으킨 상황”, SBS는 “중계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상파 UHD 본방송을 당장 시작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언급했다.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 방송국

허가부터 본방송까지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이는 디지털TV(DTV) 14개월, DMB 9개월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상파 UHD 본방송 표준인 ATSC 3.0이 아직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표준 장비로 인해 방송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 파악이 어렵다.

특히 SFN용 송수신 모듈은 정규 방송 적용 실적이 없어 관련 사고 발생 시 진단을 위한 측정 장치나 경험, 매뉴얼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 3사는 7개월가량의 필드 테스트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을 9월로 연기한다면 UHD 제작, 송출, 송신, 링크 장비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여전히 불투명

정우택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되면 야당과 노조가 방송 장악할 것” 막말
우상호 “언론 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

언론노조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당장 처리하라” 촉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뉴시스

검찰·언론 등 3대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뤄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다”며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

는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과 달리 언론장악방지법의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언론장악방지법을 조기 대선 전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더욱 낮아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1월 11일 언론 협업 인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요구하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 원내대표가 KBS와 MBC를 지금처럼 ‘청와대방송’, ‘종박방송’, ‘일베방송’으로 유지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속을 이

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ATSC 3.0 표준, UHD 제작 지원 방송 장비 부족, 수신기 보급 차질 등 기존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해 본방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보다는 ‘온전한 UHD 서비스’ 달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성과주의의 행정에 매몰돼 무리한 일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연기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9월까지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회들은 지상파 3사 본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상파의 준비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12월부터 연기해달라고 말을 바꾼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

작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9월까지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종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준비된 방송사부터 차례대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부는 2월 3일 방통위의 의견 요청에 ‘순차 개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지상파 UHD 본방송 실시에 별다른 기술적 문제가 없고,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답변까지 더해지면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 거론된 경우는 △준비된 방송사부터 순차 개시 △이르면 3~4월 늦어도 6월, 상반기 내 △지상파 3사 시작 △9월 지상파 4사 동시 시작 등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9월 시작은 논의 사항도 아니다.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순차 개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되도록 빨리 했으면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방통위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에 상임위는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조정위는 구성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나머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더민주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위가 구성만 되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 이상민 의원, 김성수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김경진 의원을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조정위 구성 시 9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기에 새누리당은 최대한 90일까지 시간을 끌 것이고, 조정위 논의도 90일 동안 할 수 있어 최대 180일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상임위 표결 기간까지 합치면 210일 약 7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의 발행이 오는 3월부터 격주간에 서 월간으로 변경됩니다. 방송기술저널은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영업직 채용 공고

〈월간 방송과기술〉에서 함께할 영업직 신입 사원을 찾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방송과기술〉은
1988년 창간 이래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방송기술 전문지입니다.
재능 있는 인재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집 부문 및 자격 요건

광고 영업 및 홍보

학력 초대졸 이상(졸업예정자 가능)

경력 신입(인원 0명)

전형 절차

서류 전형 ▶실무자 면접/임원 면접

▶최종 합격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 합격 후 졸업증명서, 최종 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공인시험 및

기타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제출

접수 기간 및 방법

마감일 2017년 2월 8일 수요일 18시까지

접수 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또는 kobeta@naver.com 이메일 접수

근무 조건

근무 형태 계약직(근무 기간 협의)

연봉 2,000만 원 이상

근무지 서울시 양천구

시간 주 5일(월~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이동통신3사 IPTV 매출 상승세

SK브로드밴드, IPTV 성장에 힘입어 매출 전년 대비 7.7% 증가

국내 최대 가입자 보유한 KT, '전체 가입자 700만 돌파', '전년 대비 23.9% 성장'

LG유플러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IPTV가 실적 상승 견인

인터넷TV(IPTV)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동통신 3사의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3조7,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 사업 매출은 각 사별로 회비가 예상보다 IPTV 사업은 3사 모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연간 매출 17조918억 원, 영업이익 1조5,357억 원, 순이익 1조6,60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 관련 자회사 PS&M 등 일부 자회사 매출 감소 및 20% 요금 할인(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신규 주파수 획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와 SK플래닛의 사업 기반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SK플래닛의 로엔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 등으로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6,601억 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업(MNO)은 선택약정회원인 가입자 증가, 가입자 폐지, 접속료 인하 등 수의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LTE 가입자 수 및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힘입어 견적세를 유지했고, 이동통신 사업의 신규 사업 분야에선 우수한 성과를 냈다.

개방 전략을 통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은 월간 사용자 수 1,000만 명을, 통화 플랫폼 'T전화'는 가입자 수 1,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최초의 한국어 음성 인식 인공지능(AI) 디바이스 '누구(NUGU)'는 출시 후 5개월간 4만대 이상 판매됐다.

연결 자회사는 2016년 사업 기반 확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성장통을 겪었지만 SK브로드밴드와 SK클라우드 등 주요 자회사는 사업 투자의 기시적 성과를 속속 드러내 기대감을 높였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IPTV 사업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 및 유료 콘텐츠 판매 확대로 8,44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3.3% 성장했다.

KT는 2016년 매출 22조 7,437억 원, 영업이익 1조 4,4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무선, 인터넷, IPTV 등 주력 사업에서 우량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KT는 2016년 매출 22조 7,437억 원, 영업이익 1조 4,4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무선, 인터넷, IPTV 등 주력 사업에서 우량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최초 서버 매출이 20조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7,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출시된 U+tv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90만, 누적 조회 수 10억 건의 어린이들의 캐릭터와 장난감 친구들(유아) ▲구독자 150만의 스타 BJ '영국남자(엔터테이너)' ▲구독자 127만의 '대도서관'(개인) ▲구독자 100만의 'ண님'(뷰티) 등 조회수 100만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보유한 IPTV 분야의 매출은 전체 가입자 700만 돌파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9% 성장하는 실적을 거뒀다.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IPTV 분야는 2017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1조4,400억 원은 2011년 이후 최대 수치다. 전체 순이익은 7,9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다.

무선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7조4,183억 원을 올렸다. 무선 서비스 매출의 경우 LTE 보급률이 75.5%(2016년 4분기 기준)까지 확대되고 Y24, Y25과 같은 특화 요금제가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한 6조6,5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무선 가입자는 85만 명 늘어난 1,890만 명을 확보했다.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은 유·무선 사업과 IPTV 사업이다. 무선 매출은 LTE와 전체 MNO 가입자 증가로 전년 대비 2.1% 성장한 5조4,32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LTE 가입자는 전년보다 100만 명 늘어 전체 가입자의 88%에 달했으며 MNO 가입자 비중도 전년 대비 10.1%포인트 늘어난 94%를 기록했다.

미디어콘텐츠 사업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조9,252억 원을 기록했다. KT는 "국내 1위 IPTV"라는 위상을 걸맞은 올레TV와 뛰어난 사용 환경(UI) 및 사용 경험(UX)과 함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적절히 제공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우량 가입자 확대, 유료 시청(PPV) 수익 증가, 광고, 흡수형 솔루션수수료 등 플랫폼 수익 증대도 미디어콘텐츠 사업 매출 성장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보유한 IPTV 분야의 매출은 전체 가입자 700만 돌파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9% 성장하는 실적을 거뒀다.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IPTV 분야는 2017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영업이익이 7,4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7,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출시된 U+tv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90만, 누적 조회 수 10억 건의 어린이들의 캐릭터와 장난감 친구들(유아) ▲구독자 150만의 스타 BJ '영국남자(엔터테이너)' ▲구독자 127만의 '대도서관'(개인) ▲구독자 100만의 'ண님'(뷰티) 등 조회수 100만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과 KT가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투자 산업을 밝힌 만큼 LG유플러스도 올해 AI, IoT, 빅 데이터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혁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사업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 목표 달성을 통한 이익 증대로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LG유플러스 "케이블 인수?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이혁주 CFO "케이블 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 없다" "다만 현 규제 하에선 어려워"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LG유플러스는 다시

한 번 케이블 인수합병(M&A)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상태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이익은 7,4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0% 급증한 1,844억 원으로 이동통신인터넷TV(IPTV)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사업의 성장이 큰 짐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월 2일 2016년 4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과거와 달리 본사의 재무 구조는 탄탄하다"며 "케이블 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11.4% 늘어난 1조4,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KT,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조5,3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 LG유플러스는 가장 큰 성장 폭을 보였다.

다만 이 CFO는 "지난해 현금 흐름이 6,000억 정도 증가해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재 규제 하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통합방송법 개정 후 M&A를 진행할 것이라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서 IPTV 사업자가 케이블 업체를 인수할 근거가 마련된다면 M&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케이블 M&A를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 제정 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권 부회장이 M&A 발언을 하고 그룹 내 M&A에 능통한 직원을 데려오는 등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케이블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 조기 대선 국정으로 국회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에 통합방송법 개정이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고 그렇기에 M&A가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LG유플러스가 절차를 제대로 밟고 정부 기관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케이블 업체에서는 SK텔레콤의 M&A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시작돼야지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단신

I'EBS play' 앱 출시..."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EBS와 함께 'EBS play' EBS play 정식 오픈!



EBS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의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와 실시간 채널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EBS play'를 출시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EBS play는 EBS가 제작한 약 10만개의 주문형 비디오(VOD) 및 실시간 채널을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최적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빨리, 자막 보기, 스크랩 등 동영상 시청에 특화된 기능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시간 알림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BS의 방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총 1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객 선호도 및 콘텐츠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등이 가능하다.

김경수 EBS IT운영부 부장은 "EBS play는 약 2년 전에,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변화의 첫 결과물"이라며, "EBS play를 통해 고급화된 EBS 콘텐츠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정 mjkang@kobeta.com

I'CBS 신규 지역 라디오 방송국 신청...기본 계획 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6일 '2017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CBS의 라디오 방송국 신규 허가 신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CBS의 FM 방송국 신규 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관련 심사 기본 계획을 심의했으며, 기독교 복음 전파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을 신규 개설하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방송사 최초로 국제신호로 제작해 송출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리ハ설 성격의 테스트 이벤트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MBC는 2월 3일 밤 1시 10분 스포르트 남녀 결선을

녹화 방송을 2월 4일 밤 1시 45분에는 남녀 스키 애슬론 결선 1차 대회를 방송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월 5일 밤 1시 15분부터는 팀스피리트 결선/결선 2차 대회를 방송했다.

MBC는 "한국 방송사로서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키점프를 국제신호로 제작하는 민족 다양 한 국제 스포츠 대회 제작 능력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경기 장면을 솔직히 방송할 방침"이라며 "추운 날씨에 예민한 방송 장비로 눈 쌓인 넓은 공간을 카메라에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점검과 리허설을 통해 최고의 방송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황승욱 MBC 스포츠국 부장대우급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월드컵 수준의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점프 종목을 한 번에 향상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I'MBC, 한국 최초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국제신호로 제작



MBC는 2월 3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리는 '2017 FIS(국제스키연맹) 크로스컨트리 월드컵'과 4일 '2017 FIS 노르딕 복합 월드컵'을 국내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7년 방송계 이슈① | 중간 광고

네이버는 날개 달고 훨훨 날개 꺾인 지상파는 끌없는 추락



'광고 공룡' 네이버

최근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같은 기간 1시간 7분에서 1시간 22분으로 늘었다. KISD 측은 "시간 점유율 측면에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증가가 TV 시청 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에도 8,219억 원의 광고 매출은 4분기 전제 매출의 약 75.8%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당 광고 매출 8,000억 원을 돌파했다. 광고 업계에선 4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약 3조 원에 유통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지상파와 방송사의 경쟁자가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과 같은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이 같은 이유로 지상파에 대한 대비적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적 규제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과 같은 방송 사업자에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도 8,000억 원을 넘겼다"며 "쇼핑·검색·광고·도입·네이버TV를 통한 동영상 광고, 지속적인 모바일 트래픽 확대, 라인을 통한 해외 광고 매출 확대 등으로 올해도 네이버 광고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KOBA 2017
www.kobashow.com



27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엔엑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KBS·MBC·SBS·EBS·OBS·한국음향학회·한국음향예술인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아리랑국제방송·tbs

문 의 한국이엔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